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화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약점들을 갖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들과 동일한 약점들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기준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산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소중한 남기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 서로를 제대로 돌보려면,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서로 의견이 일치할 때 쉬워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초자연적이고도 진실로 특별한 사랑은 불화와 대립을 배경으로 삼을 때 나온다. 이로써 세상이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큰 스케일의 기회가 도대체 요즈음 얼마나 있을까?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인종차별 정권이 현재의 다수 흑인 정권에게 피흘림 없이 권력을 넘겨주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했다. 넬슨 만델라가 로빈 섬의 감옥에서 풀려나던 날, 나는 요하네스버그에

있었다 - 그 신나는 특권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F.W 드 클라크가 "진리와 화해 위원회"를 만드는데 협력하는 것을 보았다. 그 위원회는 정의와 용서 모두를 실현시켰다. 어떤 이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쉽게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과 자유에 대한 기독교적 헌신이 이 역사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였고 그것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의 예보다 좀 더 작은 스케일이지만,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로즈 프라이스와 코리 텐 북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문하였던 나치 군인들을 용서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었다. 그 나치 군인들은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겸손한 두 여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자신들은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용서를 찾았다. 그 구원과 용서를 나치 군인들도 받았다.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자비 넘치는 반응은 심각할 정도로 불공평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역겨워할 것이다. 그렇게 혐오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탁하신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러나 메시아에 의하면,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우리가 그의 것임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다 -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지려고 마음먹는다면 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대립은 엄청나게 다루기 힘들며, 역사 속에서, 신문에서, TV에서 잊을만하면 터져나온다. 다른 정치 세력들, 그 중에 적어도 미국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어떤 정부도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작은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 것이고, 온 세계가 복음의 화해 능력을 볼 것이다. 십자가와 텅 빈 무덤이 갖는 진짜 능력은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루시는 이 일을 자신도 모르게 약화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믿는 성도들과 이스라엘의 믿는 성도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 소수자들이다. 하나의 기독교 신앙,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받는 박해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 대립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신학적, 정치적 불화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불화는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와 이스라엘 기독교 공동체의 화해를 방해한다. 더욱더 슬픈 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쪽 만을 편들어서 이 두 소수 기독교 공동체 사이를 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이 둘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 풀타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립이 얼마나 과장되어있는지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동시에 "괴롭힘 당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환영받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 신학"의 사악함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우리의 종말론들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필수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편"을 깎아내리고 싶어한다면, 우리는 양쪽 편 사이에 설 수 있는 매우 좁은 중간지대를 깎아먹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대립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는 성도들과 팔레스타인의 믿는 성도들이 같이 설 수 있는 그 중간지대 말이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들도 비슷한 유혹들을 겪는다. 스스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무기이다. 특히 그 논쟁이 기독교인들, 특히 약한 자들을 돕고 부당함에 맞서는 비전에 크게 동감하기 쉬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질 때 더욱 그렇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곤경에 초점을 맞추어 기독교인들의 동정을 이끌어내는 홍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 사실 그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가끔 기독교인 유명인사들이 억압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겠다고 지지를 호소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적으로 이

고통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 기독교인 지지세력을 갖고 있는데, 양쪽 모두 "다른 편"의 고통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양쪽 편에서 과장과 와전은 계속된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가만히 앉아서 저 쪽 편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사람들을 배반하는 것으로 말이다. 사실 저 쪽 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보다 서로 간에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생각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화해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지역에는 아랍인, 유대인, 그리고 러시아 이민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인종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 팀들은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음을 갖는 이들과 일대일로 이야기한다. 이 전도 캠페인은 Jews for Jesus 스태프인 피터와 모티가 주도하고 있는데, 피터는 아랍인이고 모티는 유대인이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목사는 아랍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현지 예배 모임을 인도한다.

현재 갈릴리 지역에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라(Behold Your God)"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립에서 화해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다. 믿는 성도들은 이를 주시하는 세계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격동의 환경에서 어떻게 "이를" 이루는가? 바로 화해를 통해서이다. 화해의 정의에 따르면, 화해는 바로 서로 반대의 관점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서로 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을 섞어서는 화해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앉아서 잘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활한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체가 이를 수 없는 것들을 이루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이 앉아서,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사랑의 행위들이며, 바로 화해를 시작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방식이다. 이것들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우리 Jews for Jesus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하이파 지역을

찾는 노력들 중에서, 복음전도를 주요 활동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캠페인은 작은 대답을 준다. 우리가 교제할 때 복음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화해를 위한 진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어떤 정치적인 주제보다 복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이 암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이야기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정치적, 종말론적 의견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말이다. 모든 부차적인 주제들을 옆으로 비켜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정말 사랑하고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면, 그 때 우리는 화해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그 때에만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피터와 그의 부인 야덴의 간증을 듣고 싶다면 http://www.jewsforjesus.org/publications/havurah/10_3/4 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전도 DVD인 Forbidden Peace 안에 있는 동영상은 [j4j.co/forbiddenpeace](http://www.j4j.co/forbiddenpeace) 에서 볼 수 있다.

메시아 안에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관심이 있다구요?

밈의 주소로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Carolyne Rohrig
Co-Laborer in Messiah Coordinator

60 Haight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이메일: carolyne.rohrig@jewsforjesus.org

"CLIM의 고백들"이라는 간증도 밈의 주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jewsforjesus.org/publications/newsletter/2005_10/colaborer



싱가포르의 CLIM 자원봉사자들이 다음 전도기회를 잡기 위해 만났습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복음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와 같이 일합시다. 저희 지부들과 전초기지들을 도울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Jews for Jesus가 미처 사역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아 안에서 협력자들" Co-Laborers in Messiah (CLIM)은 특별히 훈련된 유대인 또는 이방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저희 전도운동을 도와줍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저희 선교사들이 유월절 행사나 선교 컨퍼런스에서 저희를 대표할 때 그들을 도와줍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성경공부를 열거나 저희를 대표해서 교회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의 눈과 귀이며, 저희가 미처 지부나 전초기지를 열지 못한 곳에서는, 그 지역 공동체와 저희를 연결시켜줍니다. 저희의 연장선이 된다고 할까요?

CLIM들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 예수님을 알리는데 Jews for Jesus의 능력을 더 넓게 뻗어나가게 해주려고 무척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최전선이나 후방에서, 은사와 선호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Cape Canaveral, Florida에서 저희와 같이 일하는 Ron McDevitt이 있습니다. Ron이 최근에 보고하기를:

플로리다 기술 대학(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 FIT)에서 학생회관에 일주일에 하루씩 Jews for Jesus 테이블을 놓을 수 있도록 저를 초청했습니다.

학생회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커다란 Jews for Jesus 간판과 각종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

다. 특히 학생들은 예쁜 엽서들을 좋아했는데 바로 우리가 작년 뉴욕시 여름 간증 운동 때 나눠주었던 것들입니다.

저는 많은 유대인 학생들과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사려고 기다리는 동안 누가 제 뒤에서 "당신이 입고 있는 (Jews for Jesus) 티셔츠 정말 괜찮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Hillel에서 온 두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Hillel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대학생 단체입니다.

그 학생들은 제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 내가 유대인으로서 왜 예수야가 메시아임을 믿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테이블에서 자료를 가지고 손을 흔들며 건물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난 달에 대학교 자체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무려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캠퍼스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여기 중부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열린 문들에 대하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다른 CLIM들로부터 온 작은 소식들도 들어보시죠:

Norma Nill (Cyber-CLIM*), Edmonds, WA:

어떤 젊은 보수 유대인 남자가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점점 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도중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히브리어로 말했고, 제가 히브리어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는 "당신이 내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면 내가 당신에



시드니 모임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나가서 전도하려 합니다.



CLIM들이 모여서 준비회의를 합니다.

인도자: Kameel
Majdali,
Director, Teach
All Nations,
Melbourne

성지순례 (터키와 이스라엘)



11월 13일에 떠나는 성지순례에 초대합니다. 2주일간에 걸쳐서 터키(4박5일)와 이스라엘(8박9일, 5박은 예루살렘)로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찬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 후에 성경과 신문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여행 경비: AUD 4,500. 원하실 경우 4일을 추가하여 65km의 "예수님이 걸으신 길"(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도보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신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eanne@tan.org.au(연락정보를 가능한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쉽게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으로 이메일 문의 주시거나, 전화번호 0425 775 001 또는 03 9802 3805; 웹사이트는 www.tan.org.au; 우편 주소는 Teach All Nations, P.O. Box 493, Mount Waverley VIC 3149 입니다.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JEW'S FOR JESUS

주소 정보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Vol. 13 No.3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그리고영국에서부름두고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 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그리고TT
로도후원을받습니다.



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막바지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Greg Rosenberg, Blue Springs, MO:
독일 베를린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성경과 자료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과 주소를 저에게 주고는 나중에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고, 다른 이들은 우리의 대화 끝에 성경을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ook Kittel, Chehalis, WA:
1월초 즈음에 저는 LA에서 벌어진 로즈 볼 행사(역자 주: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1월 1일에 벌어지는 대학 미식 축구 경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UCLA 캠퍼스에 나가서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박람회에서도 가판대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과 메시아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CLIM들이 빛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접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에게 편지를 잘 쓴다든가, 블로그를 잘 운영한다든가, 트위터를 잘 사용한다든가등등....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이버 CLIM: Jews for Jesus 채팅방을 운영하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네바에서 응답받은 기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교개혁을 하고 있는 Stephen Pacht가 최근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네바보다 어떤 면에서 전도의 법적 자유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제네바에서는 완벽한 전도의 자유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시민들은 제네바가 종교개혁 때 칼뱅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피난처였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날 제네바는 그 국제적인 위세 때문에 다문화 도시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평화와 보편복지를 표방하는데, 이는 스위스의 정치적 중립에 기반합니다. "관용"은 바로 이 도시가 지지하는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모든 스위스인들이 평등함을 누린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세속 언론에서 기독교인들을 점점 안 좋게 보도하는 것을 느끼고, 공무원들이 공공 전도에 대해 점점 반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곳에 왔을 때 여기 경찰은 우리가 도시 중심가에서 자료를 나눠주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했습니다. 경찰 서장은 우리에게 공문서를 보내서, 더 이상 자료를 나눠주면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인 변호사에게, 우리가 무료 자료를 나누어줄 권리가 있다는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부터 경찰은 우리를 가만히 놔둬니다만, 다른 단체가 자료를 나눠주는 것을 계속하여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거리에서 자료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만 정부에서 인정해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겸손과 순종을 잘못 적용하여



서, 관료들이 법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교훈을 얻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사도행전 25장 11절). 이것은 그의 육체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도시 중심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누기에 훌륭한 장소이기 때문에, 전도할 권리를 지킬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천명의 제네바 시민들과 이 곳으로 출장 온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리의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가집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꽤 많은 수가 이슬람교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이슬람교인이었던 아브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히브리어와 불어로 쓰여진 티셔츠를 보고 강한 흥미를 가졌습니다. 마침 "우연하게도" 저는 "Jesus and Mohammed(예수와 모하메드)"라는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이슬람교인이자 존경받는 이맘(역자주: 이슬람에서 기독교의 목사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던 어떤 이집트인이 쓴 책입니다. 아브라는 그

책을 적극적으로 받았고 그 후 저는 바로 요한복음을 보냈습니다.

제네바의 많은 유대인들은 종교에 관해 자유스러운 관점을 가집니다. 30대 초반의 은행가인 사이몬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프랑스인 부인의 민족주의적 천주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변호사인 마크는 저와 편지를 계속하여 주고받기를 원했습니다.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제시는 30년 이상 제네바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로부터 떠난 지 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만나서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복잡하고 황당한 생각들을 가져서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거리전도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만날 자유를 가진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만지시는지는, 시간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네바를 복음화시킬 자유와 바로 그 일들에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거두실 것을 기도합니다.

Stephen Pacht
Leader, Geneva outpost

* 가명